

충북종교인평화회의

충주서 운영위 개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의 7대종단 연합기구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산하 충북종교인평화회(kcp)가 12월 11일 청주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종교평화 국제사업단 설립에 따른 충북지부등록을 결의하고 지부대의원 6명을 추천했다. <종교와 평화> 창간 1주년 기념행사는 2월 29일부터 1주일간 서울 인사동 경인화랑에서 열려 종단별로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가칭)남북누리나눔운동 사업에 회원가입과 적극참여를 결의했다. 이 사업은 북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다.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 의 사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한편 이날 종교평화회의 충북협의회 대변인에 의해 불교공동대표(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장)를 임명했다.

혜성 기자

‘禪사상’ 꽃피운 33인 조사스님 뜻 기린다

양산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삼삼조사 추모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문득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려 보았다. 모두들 침묵을 지키며 바라볼 때 마하가섭만은 뒤에 서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가섭의 눈이 마주치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언하셨다.

“나는 궁극의 진리와 깨달음으로 가는 비법을 갖고 있다. 모습 없는 모습이며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 문자나 말로 전할 수 없는 이 비법을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禪)은 한 송이 꽃과 미소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 후 부처님 이래 법등을 밝혀 온 제자들은 33인의 조사스님들로 이어졌고 현재도 그 법을 잇고자 많은 스님들이 정진 중이다.

선의 출발 마하가섭부터 아난, 나후라다, 말파, 혜능까지 33인의 조사를 생각하며 기리는 행사가 있다. 매해 음력 10월 그믐날 양산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에서 개최하는 ‘삼삼조사 추모제’다. 이 추모제는 1955년 경봉 스님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뜻을 이으며 증생들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기 위해 처음 시작했다. 조사스님들의 진영(眞影)을 불화의 대가 덕문 스님에게 청탁하고 <전등록(傳燈錄)>을 따라 전법계(傳法偈)와 제자언대를 작성해 넣었다.

경봉 스님은 매년 추모제 불행 때마다 “조사일거무소식(祖師一去無消息) 문외홍교여반월(門外虹橋如半月). 조사스님이 한 번 뒤 소식이 없나 했더니 문 밖에 무지개다리가 반달 같더라”며 설명하셨다.

행사가 열린 12월 9일 극락호국선원 삼삼전을 찾았다. 영축산의 매설계 출신 남씨도 불남의 햇살처럼 포근하고 따뜻하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극락호국선원 선원장 명정 스님, 통도사 출주 혜남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하러 왔다.

“그동안 많은 스님들이 추모제에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옛날 송광사에서 열반하신 효봉 스님께서 추모제에 참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효봉 스님께서 “오늘 방망이 34개를 가지고 왔는데 33개는 조사스님들께 다 드리고 한 개 남은 것은 누가 받아 갖 것입니까?” 하고 설명하



삼삼조사 진영이 걸린 극락호국선원 삼삼전에서 추모제가 봉행됐다.

셨지요. 추모제 후, 나가시는 효봉 스님의 손바닥을 경봉 스님이 세 번 탁탁탁 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방장 원명 스님은 청중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옛 기억을 나누었다. 선원장 명정 스님은 추모제에 대해 “정법을 인식하는 참다운 의식으로 자리 잡고 조사스님들의 참된 가르침을 이어 수행하는 참다운

의식으로 자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삼삼전은 결제기간동안 스님들의 선방으로 정진하는 장소다. “조사일거무소식(祖師一去無消息) 문외홍교여반월(門外虹橋如半月), 경봉 스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삼삼전은 선방 구도의 열기로 가득하다.

혜성 기자

치매 앓는 어르신들

가족에 음악 선물

어르신들의 음악회가 열렸다. 작은 종소리가 모여 음악을 만드는 일, 이날 참석하신 어르신들에게는 특별하다.

치매라는 병은 가족들에게 고통이다. 하지만 참석한 어르신들의 가족들은 음악회 내내 웃음 띤 얼굴로 흥겨워했다.

12월 7일 부산유호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치매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및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1년 동안 틈틈이 연습한 핸드벨과 타악기 연주는 참석하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춘성 관장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줄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호복지관은 치매 치료를 위해 음악치료, 원예치료, 손맛사지, 기구운동, 물리치료를 실시해왔다.

혜성 기자

선운사-동국대 복지포교 ‘맞손’

인적 교류 확대·시설 공동활용 등 상호협력 협약 체결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와 고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손동진)가 12월 9일 고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교육연구 강화와 고창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및 문화 봉사 지원 등을 기본으로 하는 ‘실천적 교류 협력’과 ‘상호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선운사와 동국대는 협정서에서 대학의 인적 교류를 위한 강원 교수스님과 불교관련학과 교수의 교류협력과 실무연수, 대학 도서관 등 보유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활용, 학인스님과 청년 불자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등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동국대와 고창종합사회복지관은 실천적 교류 증진을 위해 복지관에 대한 복지관련학과 기획, 연구지원과 의료 문화 봉사 지원, 복지관 직원 실무연수, 대학생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상호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창지역 복지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복지관의 복지사업에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운사-고창종합사회복지관,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선운사 주지 법만, 복지관장 무궁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전문적인 지식과 인적자원을 갖춘 종합대학과 상호교류와 복지를 통한 포교와 지역발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정서 체결 후 동국대는 무료한방진료, 영정사진 촬영, 이미용 봉사, 무료 국

악공연 등을 실시했다. 이로써 사회복지관의 절실한 과제인 인적 자원의 부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포교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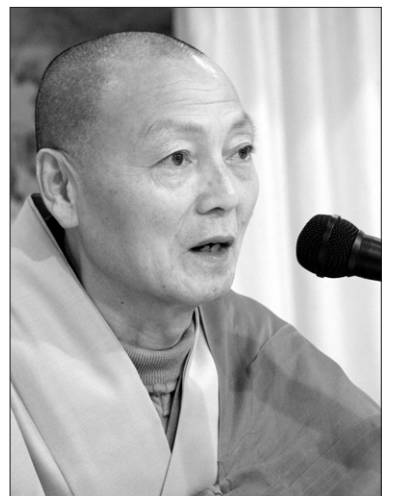
“직업 포교사 도입 검토해야”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직업 포교사를 두어 전문 인재를 길러 포교에 더욱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12월 11일 부산 불교회관 4층 교육관에서 동연과 울산 정토사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에서 주관한 세미나 자리에서다.

덕진 스님은 “현재 포교가 미진하여 학생회 및 청년회는 명백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불교종단은 아직도 고려시대의 교육제도와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포교현장의 인력이 많아야 불교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데, 스님들만으로는 역부족이니 동국대학 등 종단교육기관에서 불교교육을 받은 불자를 선발해서 스님을 돕고 포교일선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하는 직업 포교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불교 포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덕진 스님은 불교발전을 위해 열 가지 제언했다. ▲포교 지도자 수 증가 ▲불교의식 및 법회 우리말 진행 ▲비구니스님 중무지와 포교지 중용 ▲사찰재정 관리 스님 신도 함께 투명운영 ▲주말 가족법회 장려 ▲교육 복지시설 증대 ▲각 계층의 집단법회 장려 ▲선방수행승 해제절포교 매진 ▲청소년 법회와 방과 후 교실



‘직업포교사 도입’을 주장한 덕진 스님.

공부방 운영 ▲방승 인터넷 불교관련 보도 확장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동국대 이철현 겸임교수가 ‘직업포교사 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윤영애 교수가 ‘불교대학 졸업생의 사회진출과 그 개선 방안’을, 부산 흥방사 주지 심산 스님이 ‘어린이 포교현장에서의 포교인력 현실과 어린이포교지도사 배출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혜성 기자

“난치병 환자와 함께 희망을 나눴어요”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1400만원 성금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생명나눔광주전남본부의 성금 전달식이 열렸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가 12월 10일 ‘생명나눔 소아암 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 및 소아놀이방 장난감 지원’을 위한 지원금 1400만원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 김영진 병원장 및 임원진, 생명

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 부부장 현지 스님과 임원진, 자공 스님(만연사 주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거행됐다.

특히 이 기금은 지난 10월 20일 화순 만연사에서 개최된 자선 음악회의 수익금과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으로 뇌종양을 앓고 있는 이진호군 등 4명의 환우에게 치료비로 지원된다.

현지 스님은 축사를 통해 “난치성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자비의 후원과 도움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화순전남대병원장은 “마음은 있어도 행동하기 어려운 이때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고 보니 기쁘다”며 “임직원들도 환우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금조성에 많은 도움을 준 만연사 주지 자공 스님도 “소아암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100여 차례의 캠페인과 자선음악회를 벌여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중 가장 모범적으로 지원사업에 온 단계로 꼽히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교도소 법당서 독경대회

군산교도소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성광문)는 12월 12일 군산교도소 법당에서 200여 불자재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경대회를 개최했다.

선운사 지선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김

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성광문 위원장과 지역 불자여러분들이 동참한 이날 독경대회는 예선을 거친 8명의 불자 재소자가 열띤 경연을 펼쳤다. 최우수상에는 신묘장구 대다리나를 독경한 김 모씨가 차지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시간의 실수를 참회하며 살아가는 불자 재소자들에게 비누, 치약, 칫솔, 내의 등 생활필수품을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다과가 배부러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후원: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뱅크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가 12월 8일 불교회관 앞마당(지평동 무각사)에서 ‘희망과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자비’ 양념 듬뿍 넣은 김장김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김장 나누기’ 행사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가 12월 8일 불교회관 앞마당(지평동 무각사)에서 ‘희망과 자비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규방암과 증심사를 비롯한 사찰과 불교단체에 기부한 김장김치와 현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 400여 포기를 지역 불교복지단체를 통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정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예전부터

추운 겨울을 나기위한 준비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겨울김장담기’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의·식·주 준비를 할 수 없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받는 이웃들이 존재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자비를 나누어 주는 것이 불자의 사명이다”라고 했다.

이날 부대행사로 스님들과 재가불자가 함께 ‘화합의 비법’을 만들어 같이 공양하고 전통차를 무료 대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